

大學 東洋畫 教育의 現況과 課題

李 鍾 祥

(서울大 東洋畫科)

1. 東洋畫科 教育의 現況

東洋畫에 대한 大學教育은 예술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과 동양화에 대한 理論 체계를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現代 東洋畫가 안고 있는 過渡期的 狀況과 함께 그 교육 실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물론 일제에 의한 근대사의 行爲 면 속에서 현대 동양화가 계승하고 창조해 나가야 할 自生的 근대의 유산이 부재하였다는 내부적 상황과 더불어 아직 현대 동양화 교육이 정착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론 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 더구나 서구 편중화된 우리나라의 藝術 교육 제도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40년도 안 되는 동양화과 대학교육의 연륜에 비하면 팔목한 발전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국내 미술대학의 東洋畫 교육이 일본식 美感의 잔재를 불식시키고 韓國의 傳統을 창조 계승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여 온 것은 인정받아도 마땅한 듯싶다.

어쨌든 120여 개가 넘는 국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극히 적은 수자만이 동양화를 교양과목 혹은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전래적 표현 양식인 동양화는 미술대학에서 아직도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미술대학내에 등양화과를 독립된 科로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大, 弘大, 梨大, 誠信女大, 啓明大, 圓光大, 曉星女大 등 전국에서 불과 7개 대학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미술대학이나 미술학과가 대학의 순수 학문 영역으로서보다는 예술 영역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국내 유수의 종합대학에서 조차 미술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전공별로 科가 세분되어 있는 학과는 손꼽을 정도인 것이다. '46년에 서울大와 梨大에서 미술대학이 창설되고 '48년에 弘益大에서 미술과 창설이 있었지만 이 때는 아직 전공으로만 분류되어 있어서 정식 科로서의 출발은 그보다 훨씬 늦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더구나 대학에서의 동양화과 교육이 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실기 위주의 도제식 기능 교육이 성행하게 되어 굳이 대학에까지 진학하여 동양화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고명한 데가 밑에서 문도식으로 師事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통념 때문이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科의 명칭에 있어서도 아직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서울大, 梨大, 弘大 등과 같이 東洋畫科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80년대에 들어서 誠信女大, 圓光大, 曉星女大, 啓明大 등과 같이 韓國畫科로

개칭한 대학도 있다.

동양화라는 용어가 한국화로 명명되게 된 배경은 그것이 일제에 의해 붙여진 무성격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서구 주도식의 文化에 대한 일종의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自我 회복을 위한 自覺的 意志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 할 수도 있다. 이는 國學 열기가 고조된 '70년 대의 時代的 狀況으로부터 야기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의 東洋畫 教育이 지나치게 中國의 文人畫觀 위주로 진행되었거나 中國畫論 혹은 芥子園畫譜 등 중국 일색으로 경도된 데 대한 반성으로서 중국 文人畫의 文弱한 관념 미학 체계를 새로이 교육 과정에서 검증, 반성하고 순도 높은 韓國의 美意識을 체험케 함으로써 민족의 조형 의지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적 있는 藝術教育 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여야 된다는 요구가 비등 했던 때문이기도 했다. 즉 동양화과의 명칭에서

부터 그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외래 문화의 요소를 청산하고 투철한 自我意識 속에서 새로운 미술 교육과 미술 문화를 창달하여야 한다는 의지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2. 東洋畫科 教育課程의 문제점

현행 동양화과의 커리큘럼을 서울大 동양화과를 참고로 해서 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표 1-2>는 별도).

국립대학으로서 민족적 주체성과 뿌리 있는 미술 교육을 우선으로 하여 개방적으로 세계 미술의 사조를 수용한다는 입장에 있는 서울大 동양화과의 경우, 38년의 기간 동안 4~5차례의 교과 과정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 현행 동양화과의 커리큘럼은 '85년도에 최종 개편 확정된 것이다.

수묵화와 수목채색화 등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한 것은 수묵화를 고유한 동양 회화의 양식으로

<표 1-1> 서울大 東洋畫科 教科概要 및 개설 과목

교과목명	학-시 점-간	교과목개요
水墨彩色畫 I	2-4	전통 양식에 의한 용필, 용독 등의 훈련과 활용을 통하여 수묵과 채색으로 표현한다.
水墨彩色畫 II	2-4	수묵과 채색 화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특성을 살려 표현한다.
水墨畫 I	2-4	전통적인 수묵화의 양식을 바탕으로 그 특성을 찾아 표현한다.
水墨畫 II	2-4	수묵화의 특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素描 I(東)	2-4	준법 양식과 기법을 통하여 동양화의 묘법 정신을 이해하고 소묘한다.
素描 II(東)	2-4	동양화의 묘법 정신과 다양한 대상과 표현 매체를 바탕으로 소묘한다.
材料技法 I(東)	1-2	여러 가지 표현 재료와 용구 및 사용 방법에 따르는 기법 훈련을 통하여 표현 재료의 특성과 기법을 이해한다.
材料技法 II(東)	1-2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다차원적인 재료의 기법을 모색하고 표현한다.
造形 I(東)	1-2	동양화의 여러 가지 조형의 원리와 요소를 탐구하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造形 II(東)	1-2	동양화의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형성을 모색하고 표현한다.
書藝 I	1-2	기초 운필을 연마하고 전통적인 서체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각 서체의 기초를 터득한다.
書藝 II	1-2	서체의 구체적인 운필 수법과 결구법을 숨들하여 힘력을 기르고 서예의 조형성을 탐구한다.
水墨彩色畫 III	2-4	수묵과 채색을 조화시키 여리 가지 주제를 구상적으로 표현한다.
水墨彩色畫 IV	2-4	주제에 따른 다양한 양식 및 표현 방법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素描 III(東)	2-4	대상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한 과장과 생략 변형의 방법으로 소묘한다.

교과목명	학-시 점-간	교과목개요
素描Ⅳ(東)	2-4	대상과 심상의 다양한 소재 반전과 활용을 통하여 소묘의 표현 영역을 넓힌다.
表現技法Ⅰ(東)	2-4	동양화의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 방법을 모색한다.
表現技法Ⅱ(東)	2-4	현대 회화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造形論Ⅰ(東)	2-0	역대 회화 이론을 통하여 동양 회화의 예술성을 고찰한다.
造形論Ⅱ(東)	2-0	역대 회화의 이론을 통하여 한국 회화의 예술정신을 고찰한다.
傳統技法Ⅰ	2-4	전통 회화의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창작 정신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표현 능력을 갖춘다.
傳統技法Ⅱ	2-4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와 기법과의 연계성을 고찰하고 표현한다.
東洋美術史Ⅰ	2-0	동양 미술사 개설, 표현 양식, 표현 기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다.
東洋美術史Ⅱ	2-0	동양미술사 Ⅰ의 계속 및 반전 단계이다.
水墨彩色畫Ⅴ	2-4	각자의 사고와 개성에 따라 사실적·사의적으로 표현한다.
水墨彩色畫Ⅵ	2-4	졸업 제작을 위하여 수목 채색의 독창적인 양식을 추구하여 종합적으로 표현한다.
素描Ⅴ(東)	2-4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살려 사실적·사의적으로 표현한다.
素描Ⅵ(東)	2-4	졸업 제작을 위하여 자유로운 실험을 통한 독창적 묘법 양식을 추구하고 종합적으로 소묘한다.
表現技法Ⅲ(東)	2-4	심상적 대상을 주제로 하여 독창적인 표현 기법을 실험한다.
表現技法Ⅳ	2-4	자유로운 소재 선택과 심화된 표현 기법을 통하여 졸업 작품을 제작한다.
現代繪畫論Ⅰ(東)	2-0	현대 회화의 역사적 배경과 정신적 상황 등을 유파별로 고찰하여 동양화를 재조명하고 서구 현대 회화와 비교한다.
現代繪畫論Ⅱ(東)	2-0	동·서 현대 회화의 진행을 비교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여 한국 현대 회화의 정신적·사회적 양상을 고찰한다.
傳統技法Ⅲ	2-4	전통 기법과 재료를 재조명하고 그 장점과 특성을 살려 표현한다.
傳統技法Ⅳ	2-4	전통적인 표현 양식, 기법, 회화 이념을 취사, 원용하여 조형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표현 양식을 추구한다.

〈표 1-2〉 동양화과에서 미술대학내의 타학과를 위해 제공하는 교과목

교과목명	학-시 점-간	교과목개요
水墨彩色畫技法Ⅰ	1-2	수목과 채색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표현 기법을 익힌다.
水墨彩色畫技法Ⅱ	1-2	수목과 채색의 기법적 특성과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표현한다.
水墨彩色畫技法Ⅲ	1-2	수목 채색화의 다양한 기법과 조형 정신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水墨彩色畫技法Ⅳ	1-2	수목 채색화의 기법성과 조형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한다.

생각하여 우선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최근 세계적 추세로서의 드로잉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굴 장르로서의 비중을 고려, 소묘를 전학년에 걸쳐 개설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는 毛筆에 의한 自描畫로부터 東西의 여러 가지 재료에 의한 線描 繪畫를 폭넓게 이수시킴으로써 기초 학습은 물론 面的 造形思考 못지 않게 線的 造形意識을 터득케 하여 東

洋造形 전반의 특징을 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과거의 〈四君子〉와 〈東洋畫論〉을 〈造形〉과 〈造形論〉으로 바꿈으로써 時代의 감각에 걸맞도록 개편하였으며 지나치게 전통적인 소재의 편향이 아닌 폭 넓은 造形思考와 造形理論을 修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아직도 순수 理論 과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技智를 겸비한 지성적 작가를 양성해야 할大學의 東洋畫 教育에 있어서 理論 수업의 부진한 취약상은 동양화과가 개설된 모든 대학의 학습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다. 더구나 東洋畫의 理論을 西洋 美術理論의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시각 때문에 서양화 이론 담당 교수들이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大學院 과정에서 더욱 심각하게 노정되었는데 '86년도 문예전홍원의 「문화예술」(통권 106호)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복 이후 '85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 중 회화 분야의 비율만 보더라도 東洋畫와 西洋畫의 비율은 20:80으로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석사학위 논문 제출 편수의 학교별 분포도인 아래 〈표 2〉에 의하면 순수 東洋畫 碩士學位 論文을 제출할 수 있는 국내 대학의 수도 미미하거나와 전체 논문 제출 편수 또한 소수인 것이어서 學部의 理論教育 輕視 풍조는 대학원

〈표 2〉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의 학교별 분포도

(단위 : 평)

학 교 명	논문 편수	학 교 명	논문 편수
서 울 대	184	숙 대 대	14
이 화 여 대	177	명 대 대	23
홍 익 대	315	광 대 대	22
중 앙 대	36	선 대 대	18
성 신 조	78	아 대 대	24
경 회 등	25	리 텁 대 대	5
단 국 서	22	남 주 판	4
세 종 영	48	설 관	8
동 국 청	44	주	4
상 당 여	8	관	3
한 양 대	7	성	3

〈표 3〉 유수 동양화과 개설 대학의 실기 및 이론 과목 대비표(*표는 이론과목)

〈서울대〉

학년	전공필수	전공선택	기타
1	기초소묘 I · II 기초소조 I · II 기초디자인 I · II		
2	수목채색화 I · II 소묘 I · II 재료기법 I · II	수목화 I · II 조서 I · II 유화기법 I · II **미술사 I · II	일반교양 과목 교직과목 타과목 선택
3	수목채색화 III · IV 소묘 III · IV **미술사 III	표현기법 I · II **조형 I · II 전통기법 I · II 유화기법 III · IV **동양미술사 I · II	
4	수목채색화 V · VI 소묘 V · VI	표현기법 III · IV **현대화론 I · II 진통기법 III	

〈이화여대〉

학년	전공필수	전공선택	기타
1	기초통일양화 I 기초통일양화 II	소미술해부학 ※미술해부학	묘화
2	기초풍경화 기초인물화	서인기초조각론 ※기색재론 및 연습	예보교형연습 미술대필수과목 기초조형, 미학
3	인산 불우화화	문화제작 ※문화제작	인조 미화 화화법사론 미술사 및 미감상, 한국 미술사, 색채론
4	체수 색독화화 I 체수 색독화화 II	수체인어 ※수체인어	무색인어 화화화화 연습, 통양미술 사

〈호의 대〉

학년	전 공 필 수	전 공 선택	기타
1	기초소묘 소묘 기초동양(1), (2) 기초서양(1), (2) 기초조소(1), (2)		철학
2	*한국미술사 동양화 I · II *서양미술사 미술해부학 동양화기법 I · II		일반교과목, 양과목, 교직과목, 선택과목
3	동양화실기Ⅲ 동양화실기Ⅳ	동색미술 동양화	화학 화학사화(IV)
4	동양화수목 I 동양화색 I 동양화수목 II 동양화채색 II	동수동사수특수	화화화화화구 I IV II

의 논문 제출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부 교육 과정에서의 理論教育과 實技教育의 비중이 지나치게 실기 교육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일반적 상황의 개편이 이루어질 때 석사학위 논문의 질적 향상도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앞의 〈표 3〉 참조).

3. 高校教育이 大學 東洋畫 教育에 미치는 영향

한편 초·중·고등학교의 藝術 교육 체계가 지나치게 서구 중심의 교육 편제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것도 대학 동양화 교육에 있어서 문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초·중·고교 시절 실제 미술 교육을 통해 東洋畫의 理論 및 實技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거의 태반이 서양화나 응용미술 전공의 교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데다가 미술 교과서 자체가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구조적인 축면만을 강조하는 서구적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동양화에 대한 기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석고 복제 등을 통한 明과 暗의 입체적 조형 사고에만 길들여 짐으로써 東洋畫 재료에 대한 친숙도가 부족하고 東洋的 視覺과 思惟 방식에 대해 無知한 채 동양화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 학년의 교양 과정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학부의 저학년 과정에서 東洋畫的 表現 方式이나 造形思考에 길들여지기는 결코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대학 입시의 선발 기준이나 고교 교과서 등이 東洋畫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당한 정보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선결 문제라 하겠다.

4. 提 言

上記와 같이 단편적으로 현행 大學 東洋畫 教育의 現況과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데 보다 바람직한 등양화 교육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의 선결이 요청된다 하겠다.

첫째, 東洋畫科의 增設이다. 동양화과의 부족은 곧 東洋畫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의 배출 부족 현상을 낳게 되고, 이는 곧 중·고교 미술 교사 중 동양화 전공 교사의 대부족 현상을 낳게 됨으로써 중·고교의 미술 교육이 서구적 방법론과 분석적 시각 위주의 미술 교육으로 편향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다.

둘째, 理論 教育의 보장이다. 예술이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대학교육에 있어 학문적 연구를 배제할 수는 없다. 理論이 부실하거나 칭폐화될 때 결국 장이 교육으로 실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면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民族美術의 바람직한 내일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시급한 것이다.

세째, 中國美術과 韓國美術의 엄격한 分離敎育이다. 東洋畫科의 수업이나 편제가 中國 繪畫史나 그 理論 혹은 中國 繪畫의 技法 위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서구 미술을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수용하려는 처사와도 같아서 또 하나의 罪大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中國美術과 우리 미술을 비교 고찰하는 관점에서 이 양자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면에서 차츰 韓國畫 위주의 편제로 교과 과정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東洋畫科의 교육 과정이 이러한 몇 가지 改善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대학교육 당사자들이 더욱 관심 있게 연구함으로써 美術大學 내에서의 동양화과 교육이 零細性과 保守性을 벗어나고 충실히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